일 주 문



화엄사 작은 음악회

덕문 구례 화엄사 주지 스님은 4월 7일 화엄사 각황전 앞에서 '화엄사 봄의 향기'라는 주제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백양사 고불매 축제

토진 장성 백양사 주지 스님은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경내 일원서 '고불총림 백양사 고불매 축제'를 개최한다.



나라사랑 글쓰기 대회

월우 해남 대흥사 주지 스님은 4월 6일 오전 10시 대흥사 경내서 '제24회 나라사랑 글쓰기 ·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호법부장 서리에 진우 스님

신임 포교국장엔 보연 스님 임명



조계종 호법부장 서리에 前사서실장 진우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3월 14일 호법부장 서리에 진우 스님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이 호법부장 서리로 임명됨에 따라 사서실장은 공석이 됐다. 집행부는 3월 20일 개원한 중앙종회 임시회에 호법부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진우 스님은 백운 스님을 은사로 1978년 수계했다. 고불총림선원, 용흥사 몽성선원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총무원 사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3월 13일 신임 포교국장에 前감인선원 주지 보연 스님을 임명했다. 보연 스님은 성중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2001년 직지사에서 사미계를, 2005년 송광사에서 구족계를 수계했다. 범어사 승가대학과 실상사 화엄학림을 졸업하고, 은해사 포교국장, 안산 보문선원 주지, 부산 감인선원 주지를 역임했다. **윤호섭 · 노덕현 기자**

동국대 법인사무처장에 박기련 씨



학교법인 동국대 법인사무처장 서리에 박기련 前불교신문사 주간〈사진〉이 임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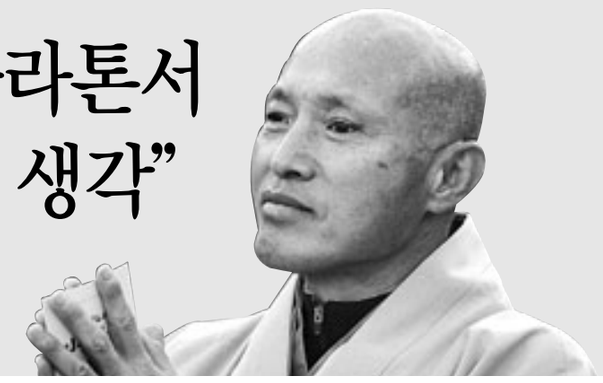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은 3월 14일 본관 4층 이사장실에서 박기련 신임 사무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기련 사무처장은 1994년 불교신문사 기자로 입사해 불교신문사 주간, 사단법인 좋은 벗 대표,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 불교포럼 사무총장,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스리랑카 희망마라톤서 이주노동자 다시 생각"

Interview

(사)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이주노동자 응원 · 감사에 감동

희망마라톤 공감대 형성 수확

베트남 위해 미국 횡단 계획도

"스리랑카에서 300㎞를 달리면서 한국서 일했다는 현지인들을 많이 만나고, 응원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장가를 갔다거나 집을 장만했다며 즐거워하는 그들을 보며 국내 이주노동자들에게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달리는 수행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이 스리랑카에서 300㎞ 희망마라톤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국과 스리랑카 수교 41주년을 기념해 희망마라톤을 펼친 스님은 울트라 마라토너 황철수, 국제농구심판 최교윤, 서울성북경찰서 김전환 씨 등과 마라톤을 마치고 종착지인 마타라 산골마을의 왈라칸다 중학교를 찾아가 해우소 1동을 신축했다.

진오 스님은 이번 마라톤에서 무엇보다 국내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스님은 "하루에 45㎞를 달리면서 한국에서 일한 스리랑카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왔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고, 이역만리까지 와서 두 발로 뛰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우리사회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잘 대해야한다는 마음이 불쑥 솟았다"면서 "현지 사찰서 머물 때는 이런 모습이 대승불교의 장점이라고 스리랑카스님들이 힘을 북돋아줬다.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대승불교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스님은 종교가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달리며 종교를 넘어선 감동도 나눴다. 진오 스님은 "처음엔 단순히 달리는 게 좋아서 참여한 타종교인도 노동자와 학생들을 만나면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종착지인 학교서 학생들이 선생님 스마트폰 반주로 춤추며 환영해주는 모습을 보며 꼭 음향기기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결국 함께 뛰는 사람들이 희망마라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공감대를 비롯해 스리랑카와의 연결고리가 생긴 점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설명했다.

진오 스님은 베트남 한국군 파병지역 108개 해우소 신축비 지원과 2020년 미국 대륙 횡단 5130㎞ 도전을 목표로 정했다. 스님은 "조계종 교육원이 실시하는 '승가결사체 전법활동 연수'를 위해 7명의 스님이 의기투합했다. 가장 먼저 다음 달 베트남 한국군 피해지역을 방문하려 한다"며 "미국 횡단 역시 베트남을 돕기 위함이다. 다양한 기부단체들이 베트남전쟁에 대한 아픔을 이해하고 잘못을 받아들여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오 스님은 한국불교계가 군종교구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 교류에 매진할 것을 호소했다. 진오 스님은 "군법사 제도가 베트남전쟁 때문에 승인됐다. 2016년 베트남 노스님들과 만났을 때 전쟁 당시 우리나라 군법사들이 오토바이로 탁발지역에 데려다주고, 합동초파일 법회도 봉행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베트남 각 성마다 불교위원회가 있다. 참전용사들도 풀지 못하는 한을 양국 불교계가 디딤돌 놓는 심정으로 품어 안는 교류가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대표사찰 문화 전승 기여를"

김상훈 봉은사 새 신도회장
3월 10일 법왕루서 취임법회



"서울 강남, 그리고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봉은사의 신도회장 자리가 얼마나 수승한 자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불심이 크다고 말할 수 없지만 불자로서의 기본을 지키고, 신도들을 살펴 불교문화를 전승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봉은사 새 신도회장에 김상훈 한국석유유통연구소 이사장(법명 법장 · 사진)이 취임했다. 3월 10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열린 취임법회에서 김상훈 신임 신도회장은 "전임 덕산 한원덕 신도회장님을 비롯해 역대 신도회장들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문화재 등록 등 중창불사를 앞둔 봉은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김 신도회장은 봉은사 중창불사 기금으로 1억 원을 봉은사 측에 전달했다.

김 회장은 "봉은사서 10여 년 전부터 신도로 신행활동을 해왔다. 항상 외국인들을 비롯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사찰 환경이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다. 사부대중이 함께 뭉쳐 도심 속에서 불법을 전하는 도량으로 가꿔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지 원명 스님은 "신도회장직은 주지와 더불어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자리"라며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 신도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달라.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머니와 같은 새 사무총장, 또 다른 임원들과 신도들이 화합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임식을 함께 가진 한원덕 前신도회장도 "다시금 신도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임기동안 부족함이 많지만 최선을 다했다. 많은 분들이 새 집행부를 위해 다시 힘을 써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신도회장은 1955년 태어나 1981년 주식회사 동특 대표이사를 지내고, 2001년 코엔펙 회장을 역임하는 등 사업가의 길을 걸었다. 현재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상임부회장이며, 한국석유유통연구소 이사장으로 있다.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 사단법인 대한택견회 회장도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수현불교대학 첫 입학식

200여 불자 축하 속 59명 입학



지난해 전주 혁신도시에 개원한 전법도량 수현사(주지 성우)가 불교대학을 개설하고 첫 입학식을 개최했다. 3월 11일 수현사 3층 큰법당에서 열린 수현불교대학 입학식에는 전북불교회관 총무 구담 스님, 안준아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새로 입학한 59명의 신입생들과 불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성우 스님은 입학식사를 통해 "전주의 혁신도시 전법도량에 수현불교대학이 문을 열고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불교의 진리와 교리를 배우고 익혀 신행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운사, 각성 스님 종경록 특강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는 3월 5~9일 고운사 화엄문화템플관에서 대강백 각성 스님 초청 〈종경록〉 특강을 개최했다. 〈종경록〉은 선종5가인 법안종 영명 연수선사가 선교일치의 체계를 시도한 저술이다. 특강에는 100여 명의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참여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사)조계종승가회 창립 5주년 법회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는 3월 12일 대구 원광사에서 창립 5주년 기념법회와 시무식을 봉행했다. 시무식에는 승가회 대승정 경보 대종사와 원로원장 월곡 스님, 종회의장 혜월 스님, 승가원장 정인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승가회는 대승정에 경보 대종사를 추대하고, 각 교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전생의 기억이 현생을 지배한다"
전생상담사 모집

옛 성어에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성어는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뜻으로 무엇이든지 경험해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생 상담의 특징은 단지 전생을 체험하는 자체 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단순한 문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이나 대인관계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인식에 도달하게 됩니다.

최면을 이용한 전생 상담 기법은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전생의 기억을 통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원인 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는 일입니다.

20여 년간 5,000여 명의 전생 상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핵심 기법만을 엄선하여 누구나 쉽게 배워서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수해 드립니다.

TV 방송에 300여 회 출연한 임재형 원장이 직접 강의합니다.

개 강 : 2018년 4월 2일 (월요일) 총 5회 과정
일 정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교육비 : 50만원 (수련 CD 및 교재 제공)

한국최면과학원 (042)222-0737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석교동 주민센터 옆)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욜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욜
상·중·하 단전 차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육임실전 비법 출간

육임으로 쓴 세계 최초의 육임실전비법이다. 지금까지 이론책은 많았지만 육임으로 실전법이 나온 책이 없었다. 이론을 많이 알아도 적용방식을 모르면 공부하는 시간만 허비하고 정확한 점사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론과 실전방법을 적용하는 공식으로 각각의 정단에 적용하여 만든 비술이다. 생년월시로 보는 사주와 신수는 물론이고 시간법으로 보는 초사 잡는 법, 목적사 구별법 등으로 편리하게 (e-book) 전자책으로 출간하였다. 명리, 주역 등을 공부하신 분도 실전방법을 알면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실전비법 30만원, 출판기념 이벤트로
육임실전비법 + 수강 3개월 - 합 50만원
50명 선착순 모집!

육임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 프로그램)
6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한정 10대 e-book 기념 파격판매!
e-book 교보문고에서도 구입가능!

http://www.사주보궁.com
전화 02)793-7333

당신의 전생을 알려 드립니다

나 보다 더 나를 잘 아는
내영혼의 메시지와 전생 이야기
전생의 인연법을 알면 현생의 해답이 보입니다.

» 궁금한 인연관계 «
연인, 가족, 부부, 동료 등의
전생인연 관계

» 미래의 일 «
배우자 선택, 진로선택,
직장문제, 일의 성사 등

» 빙의치유 «
최면심리치유, 빙의 치유,
전생체험,고인과의 만남

수행자의 상담을 환영합니다.
효총사는 관세음보살님께서 현현하시어
당신을 향한 가피와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효총사 010-6560-9117